

첫 '푸른눈 춘향이' 탄생하나

남원춘향제 5월10일~16일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개최
다음달 6일까지 신청자 모집
5월15일 최종 본선대회



지난해 열린 '제93회 춘향제'의 전국 춘향선발대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있는 춘향선발대회에서 외국인 춘향이가 선발될 수 있을까.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부터 전국춘향선발대회를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변경하고 참가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국민뿐만 아니라 타 국적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매해 남원춘향제에서 개최하는 미인선발대회로 지난 1950년부터 시작해 '춘향다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춘향선발대회 출신으로는 배우 박지영, 오정해, 윤순하, 이다해 등이 있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지역에 상관없이 1999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모원서를 오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서류 접수하면된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서류 심사와 1, 2차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30명을 선발 한 후, 10박 11일간의 합숙 기간과 함께 제94회 남원춘향제 개최 기간 중인 5월 15일 최종 본선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에서는 춘향 진, 선, 미, 정, 숙, 현 6인과 글로벌 뮤즈상 2인, 우정상 1인을 최종 선발하게 되며, 상금과 함께 남원시 홍보대사 자격이 주어진다.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인선발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춘향선발대회는 남원춘향제와 함께 K컬처를 세계로 확산하고 글로벌축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올 전기차 589대 구입 지원

97억 투입 승합차 최대 1억원...충전 인프라도 확대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승용 281대, 화물 303대, 승합 5대 등 전기차 589대의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입지원비는 지난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비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1개월이

상 정읍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대상자는 차량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민간 자본만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65기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 등 대형재난사

고로 이어질 우려에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9개소의 지하 충전기 23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의 구매와 운행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에 친환경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비 50%를 감면하고 충전을 위해 주차할 때에는 2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며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정읍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환경보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문화터미널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매월 첫째주 3일 진행...정신건강·직업 등 5명 상담사 상주

고창군이 민·관 협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은 총 5명(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로컬잡센터)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상담실이 연말까지 고창군 문화터미널 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 문화터미널 상담실은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매월 첫째주 3일에 진행되며, 휴일인 경우에는

8일로 변경되어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실행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시청 축산과·위탁 동물병원 신청

남원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운영 중인 위탁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시청 축산과 및 위탁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입양은 위탁 동물병원(하나, 청원, 인월동물병원)에서 상담·교육 및 동물 등록 절차 후 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관리를 위해 예산 9200만원을 지원한다.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남원 지역에서는 659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10마리(47%)가 입양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 27.4% 보다 높은 수준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정착돼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50년' 고창종합병원 인암병동 신관 증축



조남열 고창종합병원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최근 인암동 병동 증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지상 5층 1300평 12월 완공

고창에 있는 고창종합병원이 올해 말까지 지상 5층 1300평 규모의 병동을 증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창종합병원은 명실상부한 300병상급 중 전국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12월 인암동 병동 증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개원 이래 이번 6차 신관 증축은 고(故) 조병재 원장의 아호(인암)를 따라 인암동으로 명명했다. 인암병동은 올 12월 완공 예정으로 이비인후과, 신경과, 피부과 등 진료과 증설로 진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1-2인실을 대폭 확대했다.

또 안마의자 비치 등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과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신설하고 건강강좌 등 다양한 고객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종합병원은 초대 이사장인 조병재 원장(2018년 별세)이 의료취약지였던 고창지역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78년 동산의원을 시작으로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1500평 규모의 신관 증축을 통해 사해안 최고의 시설을 갖춘 도시형 신 병원을 증축하며 대도시 종합병원과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고창종합병원은 석천재단 장학회를 통해 지난 31년 동안 총 1528명의 지역 고등학생에게 총 11억766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농림축산식품 71개 사업 추진

1538억 투입 농가 소득 증대

정읍시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올해 대규모의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최근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과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열려 총 1538억원 규모의 총 71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1일부터 19일까지 공모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업 부서에서 2025년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았다. 그 결과 ▲정책 분야 18개 사업, 661억 ▲식량·원예분야 18개 사업, 105억 ▲축산 분야 22개 사업, 444억 ▲임업·유통 분야 13개 사업, 328억 등을 확정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의결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